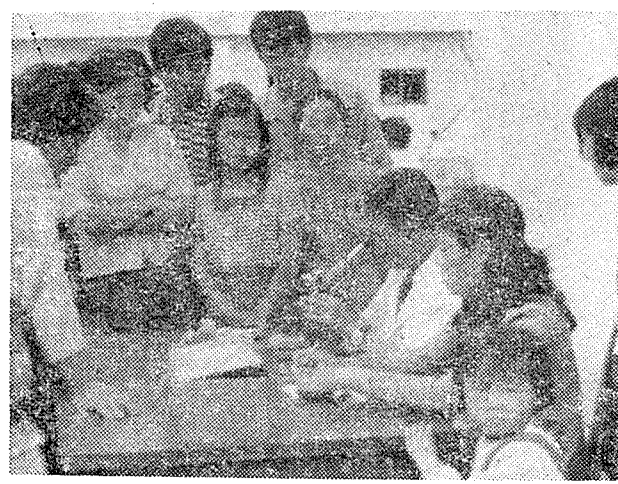
우리들의 確信

안 석 록
〈기협 강원지부 검사소장〉



□ 병리기사의 생활에는 평안함이 없다. 특히 새마을 주민의 자조방역사업에는 지방민과의 호흡이 맞아야 한다.

병리사 생활 10년.

이젠 노력의 보람찬 내일이 닥쳐올 줄 믿는다.

늘 같은 생활을 하는 그 속에서도 발전과 성장하는 것이 인간인 것 같다.

사람마다 자기 직장을 만족하게 여기는 사람은 별로 없겠지만 맡은 직무에 충실하게 봉사해야 된다는 신념은 공통이라 여겨진다.

기생충 질병은 예측하기 어렵게 인체의 기생충 감염기회를 노리는 것이다.

나는 기생충박멸협회 검사소에서 만성병인 기생충 예방구제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고 있다. 매일같이 검사물을 떡 주무르듯하면서 조작을 해서 하나 하나의 검사성적이

기생충 감염자에게 알려져 투약됨으로 질병으로부터 받은 고초를 해소시켜 주고 새로운 자세로 새마을 사업에 참여하는 것이다.

나는 병리사 생활에서 이런 일들을 체험했다.

매년 춘·추로 2회, 학생기생충 감염확인검사를 한다. 기타 새마을 주민검사, 후생시설, 생활보호대상자들도…….

처음에는 이런 검사물을 어떻게 처리하나 하고 어깨가 무거워졌었다. 그러나 모든 일은 정신자세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다. 이 사회의 모든 것은 전문화를 요하고 있으며 우리도 개발하고 노력함으로서 이 어려운 고비를 넘기고 있는 것이다.

내가 맡은 일은 정확하고 세밀하게 검사하고 있다고 자부한다.

그렇던 어느날, 학부형이 검사소를 찾았다. 이렇게 질서있게 검사를 하는데 틀리는 법은 없을텐데… 하고 혼자말처럼 중얼거린다.

어떻게 오셨느냐고 물었더니 항의 비슷한 말로 우리 아이가 肝디스토마 감염통보를 받았는데 어찌된 것이냐고 묻는다.

어린 학생은 외모는 건강하게 보였고 현재도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나는 내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혹시 검경과정에서 판독이 잘못 되지않았나 하고. "그럴리가 없다" 우선 학부형을 설득시켜 이해를 시켜야 하겠다고 생각하고 肝디스토마 감염경로를 설명하고 나서 어린 학생의 대변을 받아오도록 용기를 주었다.

대변을 받아 조작과정을 보던 학부형은 자기 대변도 잘못 만지는데 남의 똥을 그렇게 잘 만지는냐고 감탄까지 한다.

스라이드를 현미경 위에 올려 놓는 순간 학부형은 자기 자녀가 감염 안되었으면 하는 심정이겠지만 나의 마음은 시험대에 오른 묘한 기분이었다.

우선 기생충이 검출되어야만 학부형을 이해시킬 수 있겠기에 제발 검출되기를 희망했다. 순간, 肝디스토마 충난이 검출되었다. 몇개 나란히 적은 씨앗모양 검출된 것이다. 나는 부형에게 직접 현미경을 들여다 보도록 했다. 현미경확인이 끝난후 우리들 검사원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것이였다.
이런 인정미 넘치는 답례에 피곤함도 살아져 갔다.

이런 학부형이 많으면 많을수록 기생충박멸사업은 더욱 활기 있게 진전될 것이며 국민건강에 이바지 한다는 우리 검사원들의 긍지에는 변함이 없다.